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③	②	④	③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②	②	③	④	③	③	①	①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복수표준어와 관련된 문제이다. ‘옥수수-강냉이’는 고유어끼리 연결된 표준어이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2. 정답 ④

④번은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독서는 삶의 방편이다.’, ‘독서는 평생의 반려자이다.’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자연스럽다.

[오답]

- ① →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O)
- ② → 모두 흥에 겨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O)
- ③ → 축배를 들며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 (O) 또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 (O)

3. 정답 ③

‘협의’는 [허비]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고, [허비]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받침이 ‘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는 연음시켜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며 [ㅣ]로 발음함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성의(誠意)’는 [정의]를 원칙으로 하고, [성이]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오답]

- ① → [일께]
- ② → [바틀]
- ④ → [막찌만]

4. 정답 ③

‘언어의 분절성(分節性)’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어제-오늘-내일’, ‘이마-뺨-턱’ 등이 있다.

5. 정답 ②

‘그러나’는 앞 내용에 대한 역접이므로 ‘힐링 상품의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하고, 다음 문장 역시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②번이 적절하다.

6. 정답 ④

‘옳은지’의 ‘지’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로, ‘그가 떠난 지 10년’의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7. 정답 ③

지문의 중간 아래 부분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숭이이고, 숭고한 본능을 새로 얻었지만 세속적 본능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③번은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④

‘여행의 노정과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 어디로 가고, 몇 밤을 자는지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9. 정답 ③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물실호기(勿失好機)’라 하였으니,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10. 정답 ②

제목 문제는 ‘반복되는 주어’와 ‘중심 소재’를 찾으면 된다. 첫 단락은 ‘속초의 아바이 마을’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 부분은 ‘가자미식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11. 정답 ①

‘재산을 늘렸다’가 맞는 표현이다. 한글맞춤법 57항에 의하면 ‘늘리다’는 ‘양이나 수를 늘게 하다’이고, ‘늘이다’는 ‘길이를 늘게 하다’이다.

12. 정답 ②

운니지차(雲泥之差) :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으로,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이르는 말.

예) 좀 과장하여 집 외모와 내용은 천양지간, 운니지차라 해야 할지.

천양지차(天壤之差) = 소양지차(霄壤之差) = 천연지차(天淵之差)

13. 정답 ②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글이며, ‘자연 생태계’와 ‘우리 사회’의 유사성을 빗대어 ‘유추(類推)’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14. 정답 ②

‘기여하고저’를 ‘기여하고자’로 바꾸어야 한다. ‘-고자’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며, 예를 들어, ‘그는 특별히 예의라는 것을 엄격히 지키고자 노력하였다.’의 꼴로 사용된다. 참고로, ‘-고저’, ‘-고저’는 모두 틀린 표현이다.

15. 정답 ③

고급 마케팅을 구사하던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이 적절하다. 자승자박(自繩自縛) :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정답 ④

‘조선 시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은 글에서 알 수 없다. 즉, 조선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고 나와 있을 뿐이다.

17. 정답 ③

연쇄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ㄷ’의 ‘도구’ → ‘ㄱ’의 ‘도구, 자연’ → ‘ㄴ’의 ‘자연, 극복’ → ‘ㄹ’의 ‘자연, 극복, 그 좋은 예’ 등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적절한 전개 순서가 된다.

18. 정답 ③

종속 합성어를 묻고 있다. ‘돌다리’가 ‘돌로 된 다리’라는 뜻으로 수식 관계에 있듯이 ‘책가방’ 역시 ‘책을 넣어 다니는 가방’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마차(馬車)’ 등도 가능하다.

[오답]

①, ② : 대등 합성어.

④ : 융합 합성어.

19. 정답 ①

‘간절한 바람’은 맞춤법에 맞다. ‘바라다’는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는 의미이며, ‘바람, 바랐다, 바라고, 바라느’ 등으로 활용한다.

참고로,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는 의미는 ‘바래다, 바랬다, 바렘’이 맞다.

[오답]

② → 안팎. ③ → 막역한. ④ → 계시판.

20. 정답 ①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가 입론해 주십시오.’, ‘이어서 반대 측에서 준

비해 온 입론을 들겠습니다.’ 등으로 발언 순서를 정해 주고 있다.

[오답]

③ : 반대 측 토론자만 찬성 측의 개념만 동의하고 있을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